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위험인자의 분석

부산의대 내과 최재훈*,이태근,하재경,김상현,전국진,홍택중,신영우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발견하고, 조절 및 치료를 함으로서 이환율을 줄일뿐만 아니라, 예방을 통해 재발을 줄일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급성 심근경색환자에서 연령, 성별등으로 분류하여 동반하는 위험인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8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받은 495명(남:녀 313:182명, 61.9 ± 11.9 세)을 대상으로 기존의 위험인자들과 혈중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LDL-콜레스테롤 등을 조사하였다.

나이에 따른 기존의 위험인자 및 혈중 지질 농도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20대 환자군에서 고혈압(75%)과 흡연력(50%)이 높게 분포하였고, 중성지방 농도 200mg/dl 이상의 환자가 75%($218.2 \pm 99.1\text{mg/dl}$)였으며, LP(a)농도의 상승소견이 50%($39.6 \pm 18.2\text{md/dl}$)에서 동반되었다. 또한 60대와 80대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중성지방의 상승소견이 50%이상 동반되었다. 내원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측정된 환자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22.5% Vs 14.7%).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중성 지방의 상승($248.7 \pm 127.4\text{mg/dl}$, $164.3 \pm 96.6\text{mg/dl}$, $p < 0.01$)과 HDL-콜레스테롤의 저하($37.5 \pm 12.9\text{mg/dl}$, $42.4 \pm 12.4\text{mg/dl}$, $p < 0.05$)가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연령, 성별에 따른 동반하는 위험인자의 특성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연령군에서 중성지방의 상승소견을 보였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의 중성지방의 유의성은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경색후통발생후 응급실내원시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승환¹, 오동주, 송우혁, 신성희, 박상원, 정성원, 안정천, 임도선, 박창규, 김영훈, 서홍식, 심완주, 노영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 내과

연구배경: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관동맥의 재관류는 조기에 시행할수록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경색 후통 발현후 결정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까지의 평균 내원 시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고가 미미하다. **연구방법:** 2000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n=109)를 대상(재외환자: 내원시 심근효소가 정상화된 환자, 타병원에서 심근경색 치료후 전원된 환자, 병력 청취가 불가능한 환자)으로 입원당시 경색후통 발현 후 응급실까지 내원시간, 환자의 기본특성, 사회경제적 요인, 과거병력, 평소 협심증 유무, 심근경색에 관한 인지도, 경색 후통에 대한 환자본인의 판단, 처음에 취한 조치, 내원 교통수단, 의원경유 등 응급실 내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소수의 지연된 환자에 의한 편차를 고려하여 최대 내원시간을 24시간으로 한 후 대상환자군의 평균 내원시간은 6.09 ± 7.44 시간이었으며, 내원시간의 중앙값은 2.5시간, 6시간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75명(69.7%)이었다. 응급실 내원을 지연시키는 요인은 고령(70세이상(n=23) vs 50세이하(n=20), 9.01 ± 9.37 시간 vs. 2.71 ± 3.06 , $p=0.013$), 평소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에 관한 인지도(인지(n=51) 3.59 ± 5.13 시간 vs. 8.29 ± 8.45 , $p=0.001$), 환자가 구체적으로 처음에 취한 행동(심각하게 여기고 무조건 응급실로감(n=36) vs.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낳겠지하고 기다림군(n=27), 2.30 ± 4.11 시간 vs. 9.31 ± 8.60 , $p=0.001$)이었으며, 그 외의 다른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6시간이내에 내원한 환자군과 이후에 내원한 환자군의 비교에서도 연령,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한 평소의 인지유무, 환자의 처음에 취한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론:** 도시지역에서 심근경색환자의 평균응급실 내원시간은 6시간이었고, 약 70%의 환자는 치료의 적기에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러나, 고령, 평소의 교육과 홍보부족에 의한 낮은 심근경색, 협심증의 인지도, 인식부족에따른 환자의 그릇된 조치로 심근경색 후통 발현후 응급실 내원시간의 지연을 가져옴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고령환자에 대한 심근경색, 협심증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됨을 제시한다.